

일주문

캠보디아 우물 2030기 건립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캄보디아 따께오주 썸트라웅뎀 마을에 7월 30일 39번째 우물을 건립했다. 공생회의 캄보디아 우물은 2030기가 됐다.

생명나눔본부에 5백만원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20주년을 맞아 7월 26일 발전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해인사 자비원에 1억원 기부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은 7월 24일 해인사 자비원 운영기금 1억원을 아릅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기탁했다.

김영택 작가 전시 롯데갤러리서 펜화가 김영택 작가의 'Pen and Ink Drawing Works' 전이 9월 29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 롯데 갤러리에서 열린다. (02)723-3340

배춘희 위안부 할머니 추모비 제막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를 추모하는 비가 7월 25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 제막됐다. 추모비에는 배 할머니가 평소 즐겨 부르던 노래 '소녀 아리랑'의 가사가 새겨져 있다. 배 할머니 추모비 옆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는 6개의 비와 공동 추모비 1개가 세워져 있다. 1923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배 할머니는 19세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모르고 정신대에 자원, 중국 만주에서 성 노예 생활을 했다. 배 할머니는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모은 8천만원을 중앙승가대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배현진 기자



7월 25일 제막식을 가진 배춘희 할머니의 추모비

BBS 불교방송 노사파트너십 워크숍

BBS 불교방송은 7월 18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소통을 통해 하나되는 신명나는 일터'라는 주제로 '노사파트너십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원 사장과 전영신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본사와 지방사 임직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지오영 이희구 회장의 '열정, 인생을 바꾸는 강력함'이라는 주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정혜숙 기자



“희망의 발걸음으로 평화 발원”

부산 불광사 순례단 10보 1배 728km 대장정 9월 1일부터

남북평화와 사회화합을 위한 10보 1배 순례가 열려 화제다. 부산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은 9월 1일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고 나아가 사회의 상생을 발원하는 10보 1배 728km 순례 대장정에 오른다. 보광 스님은 화합되지 않고 불신과 논쟁이 만연하는 사회에 이해와 화합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와 같은 순례를 기획했다. 부산에서 시작해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총 7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대장정에는 구미 관음사 주지 자중 스님, 부산 우리선원 주지 석광 스님, 그리고 김동현 불광사 봉사회 총무가 동참한다. 순례단은 '경제난 극복 기원과 남북통일 및 상생을 위한 10보 1배 대순례'라는 이름 하에 9월 1일 부산 불광사를 기점으로 오대 적멸보궁인 양산 통도사, 태백 정암사, 영월 법흥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등을 거쳐 11월 15일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회향한다. 열 걸음을 옮기고 절을 올리는 10보 1배를 통해 화합과 공존에 대한 간절한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한다. 또한 침체된 경제, 세월호 참사 등으로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희망과 위트가 될 전망이다.



남북평화·사회화합 발원 부산에서 고성까지 75일 일정 “침체된 사회에 희망 전하고자”

이번 순례를 기획한 보광 스님은 “은사인 지존 인산 스님은 불광사 창건 당시 실천과 공덕은 닦지 않으면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 함께 사는 공존의 시대가 필요함을 사회에 알리고자 직접 행동에 나섰다”며 이번 순례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보광 스님은 “지금 사회 분위기가 매우 위태롭다. 경제난 속에서 가정의 어려움이 생존의 어려움이 됐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의 화합과 소통보다는 경쟁이 치닫고 있어 국민들은 불

안에 떨 수밖에 없다. 스님이라는 업을 가지면서 그냥 가만히 수행만 할 수는 없었다. 동참해준 순례단과 함께 중생구제와 더불어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장정에 합류하기로 한 자중 스님과 석광 스님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긴 여정의 10보 1배 순례라 체력이 염려된다. 하지만 부처님이 항상 어디서든 계신다는 믿음 하나로 보광 스님과 함께 평화를 발원하고자 한다. 길이 곧 법당인 셈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광 스님의 10보 1배 순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광 스님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10보 1배로 오대 적멸보궁을 참배했다. 보광 스님은 과거 라오스에 학교를 건립했다. 길 위에서 배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라오스 비엔티엔 근교 반건마을에 초등학교를 설립했다. 국내 어려운 이들을 제쳐두고 “왜 라오스에 학교를 건립했나”는 사람들의 질문에 보광 스님은 “순수함이 남아있는 나라이다. 또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에서 라오스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 세계의 평화와 행복은 우리에게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보광 스님의 세상을 위한 평화의 서원이 이번 순례로 다시 한 번 시작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종교인들, 청소년 발심에 힘써야”

김용표 교수, 불교종립학교 교직원 연수회사 강조

불교교육연합회(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태화산 한국문화연구원에서 개최한 '제48차 불교종립학교 교직원 수련회'에서 김용표 동국대 교수는 “보통 16세를 전후한 청소년기에 종교적 회심을 경험하기에 종교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이런 회심을 발심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교법사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적 회심과 발보리심’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김 교수는 “회심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인생에서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발심에 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매순간 보리심을 일으키는 불퇴전의 정진이 필요하며, 항상 깨어서 정진하려는 결단의 연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합회 산하 13개 법인 29개교 학교장 및 교법사 등 80여 명이 참가했다. 수련회에서는 조계종 전국교법사 단장 이학주 법사(동대부여중)가 ‘비폭력 교실을 위한 자비의 대화법’, 이등배 정광교 교법사가 ‘불교의례의 이해와 실천’ 그리고 ‘교사 행복요령’ 등을 강의했다. 불교교육연합회는 1962년 창립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불교종립학교 연합기구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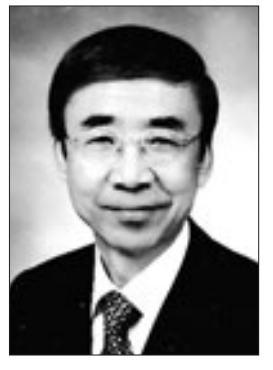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최소 108 사찰 동참하도록 노력”

박중수 신임 직할교구신도회 회장

“임기 2년 동안 108곳의 사찰이 직할교구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이 7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직할교구회 대의원총회에서 3대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중수 신임 직할교구신도회장은 2016년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직할교구 사찰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직할교구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다. 박 신임회장은 “직할교구에 해당되는 사찰이 450여 곳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40여 곳 사찰만이 동참하고 있다. 임기동안 봉은사, 도선사, 영화사 등 주요 사찰을 비롯해 적어도 108개 사찰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중수 회장은 “신도직할교구에서 실질적으로 포교도 하고 조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임기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제3대 감사에 한말산 화계사 신도회장, 이금석 노적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박중수 신임 직할교구신도회장이 취임식은 오는 8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에 송석구 前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송석구 前사회통합위원장(前 동국대 총장)은 7월 25일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삼성 그룹이 사회 소외계층의 교육균등 기회 제공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송석구 이사장은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동국대학교 총장, 가천의과학대 총장,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송석구 이사장은 “사회통합위원장으로 있으며 소외계층 사다리 교육을 주창한 것이 이번 장학재단과 뜻이 맞았다”며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계층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고, 그로 인해 소외계층의 교육의 기회가 너무나 줄어들었다. 봉사의 마음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단으로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석구 이사장은 특히 “꿈장학재단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사회갈등을 채우고 우리나라의 동량을 키워내는 설립이념을 갖고 있다”며 “그 이념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통해 국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꿈장학재단 이사회는 선임 배경에 대해 “송석구 신임 이사장은 교육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재단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며 “향후 삼성꿈장학재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재안 스님, 부안군에 장학금 기탁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학생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안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이 7월 31일 부안군 나누미근농 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부안군청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서 재안 스님은 “예로부터 부안은 많은 문인들이 배출된 학문의 고장이었다”며 “부안군 나누미근농 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을 확보하여 빈곤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듣고 작은 돈이지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2월 개암사 주지로 부임한 재안 스님은 2012년에도 장학기금 300백만원을 기탁한바 있으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자비의 쌀을 전달해왔다. 재안 스님은 전국승가학인연합 조직부장, 동국대 석림회장, 봉은사 포교국장을 지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이석기 선처」 탄원을 규탄한다

사문의 한사람으로 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규탄하기에 앞서 호국불교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교가 한 종단의 사판승으로 하여, 참회와 반성없이 반국가범죄자로 재판중인 자를 선처하라는 호소는 어떠한 이유에도 전 불교도들을 욕보이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규탄하는 바이다. 급변하고 있는 제 5정보화 시대의 지구촌의 격랑은 기도교적, 유교적 사회를 급격히 무너뜨리고 IT시대의 새로운 사회 규범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직장과 가정 모든 사회 구조는 상명 하복의 질서와 가부장적 질서를 새로운 동반 관계를 유지시켜줄 도덕적 규범과 종교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적 유일 신성론의 신앙은 더이상 횡적 사회질서에서 규범과 질서를 지탱해줄 종교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반면 3,000년전부터 이 시대의 혼란을 예견하고 가르친 불교의 평등 사상은 혼돈과 무질서의 횡적 사회현상을 지탱하고 도덕적으로 완성시킬수 있는 유일한 종교적 가치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종교 문화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근대적 종교집단과 어울려 불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자승자박하는 일이며, 21세기 불교의 사명을 깊이 알고 서구에 화살의 속도로 번지는 교리 정리에 몰두 하고 있는 사문의 긍지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하였을 것이다. 이판승의 계와 율의 존엄한 가치는 정치 경제 사회의 파사 현정을 가르키고자 함이고 결코 부정과 사특함을 동정 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판승의 책무는 계와 율이 더욱 청정 하도록 지키는 일일 것이며 그들의 목언 만을 전할 것을 재삼 재사 강조하는 바이다.

불기 2558년 7월 28일

화쟁교단 분황종 총재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